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물가도 높지만, 소비 지출도 견조해
- Bloomberg: 미 3분기 GDP, 연율 4.4%로 상향 조정
- Bloomberg: 올해 1월은 ‘소비와 지출이 없는 달’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청구 20만건으로 안정적...’낮은 해고’
- Bloomberg: 연준의 대차대조표 주목... 트럼프의 의장 저울질에

[물류]

- WSJ: 창고 수요 반등으로 관련 업체 매출 증가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의 다보스에서 언급한 미국 경제는?

[오일]

- Bloomberg: 오일가 하락...젤렌스키 평화 회담 진전 언급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GE Aerospace, 주문 쇄도로 매출 증가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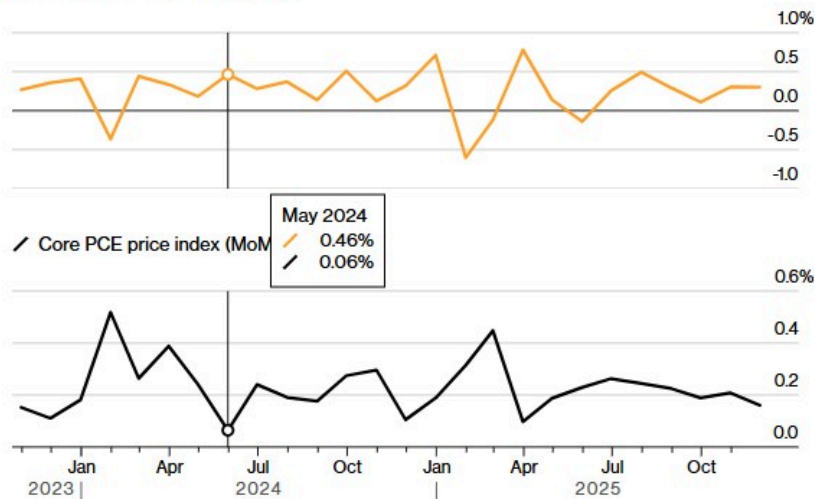
Bloomberg: US Consumer Spending Rises Solidly in Back-to-Back Gains
미 물가도 높지만, 소비 지출도 견조해

- 11월 미 소비자들의 지출이 견조하게 성장해 작년 홀리데이 쇼핑 시즌이 시작될 때 지출이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 목요일 연방경제분석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지출이 10월과 같이 0.3% 상승했다. 오늘 경제분석국이 두 달 치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은 연방 정부의 첫다운 조치 때문이다.
- 또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표인 물가 지수는 11월의 경우 전년도 동월에 비해 2.8% 상승했다. 10월의 연간 상승률 2.7%보다 높았다.
- 한마디로 물가가 높지만 소비자들의 지출이 견조한 상황이다.
- 이번 발표는 노동시장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오히려 임금 상승으로 개인 소비 지출로 4분기 경제가 좋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이번 소비자 지출은 자동차, 의류, 휘발유 등의 지출이 많았던 반면에 의료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가 줄었다.

US Consumer Spending Rose at Solid Pace in November

Inflation rose modestly in report delayed by government shutdown

Real personal spending (MoM)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Metric	Nov.	Estimate
Real consumer spending (MoM)	+0.3%	+0.3%
PCE price index (MoM)	+0.2%	+0.2%
Core PCE price index (MoM)	+0.2%	+0.2%
PCE price index (YoY)	+2.8%	+2.8%
Core PCE price index (YoY)	+2.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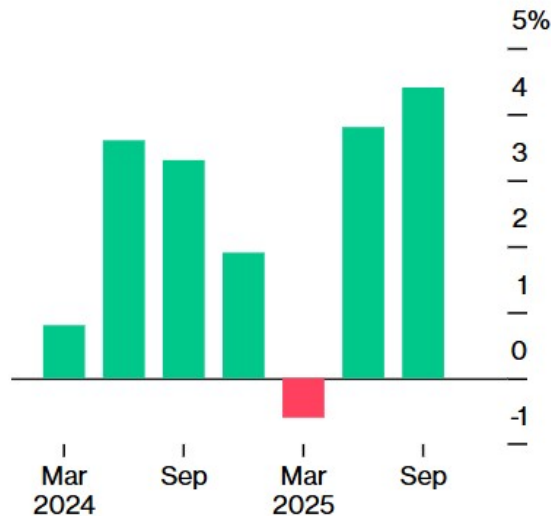
기사

Bloomberg: US Economy Expanded at Revised 4.4% Pace in Third Quarter

미 3분기 GDP, 연율 4.4%로 상향 조정

- 미 3분기 경제가 당초 발표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수출과 성장 발목을 잡았던 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오늘 목요일 연방경제분석국 발표에 따르면 인플레이 조정 경제성장이 3분기에 2년만에 가장 빠른 연율 4.4%로 상향 발표되었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는 팬데믹 회복이 시작된 2021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 분기중에 하나였다. 기업들은 3분기에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연초에 수입을 서두른 후에 수입 속도를 늦췄다. 소비자와 기업들도 변동성 큰 관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지출을 보였다.
- 현재 연준은 강한 성장과 안정된 일자리 시장, 높은 물가로 인해 다음주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US GDP Growth Ticks Higher



기사

WSJ: The Americans Who Are Going a Whole Month Without Buying Anything

올해 1월은 ‘소비와 지출이 없는 달’

- 올해 1월에는 “No Buy January” 검색량이 많아 소비자들이 필수 품목이 아닌 제품들의 구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구글에 “No Buy January”라는 검색량이 지난 12월에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이를 이끌었다고 PricewaterhouseCoopers는 밝혔다.
- 2천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 이상이 지출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답했으며 12%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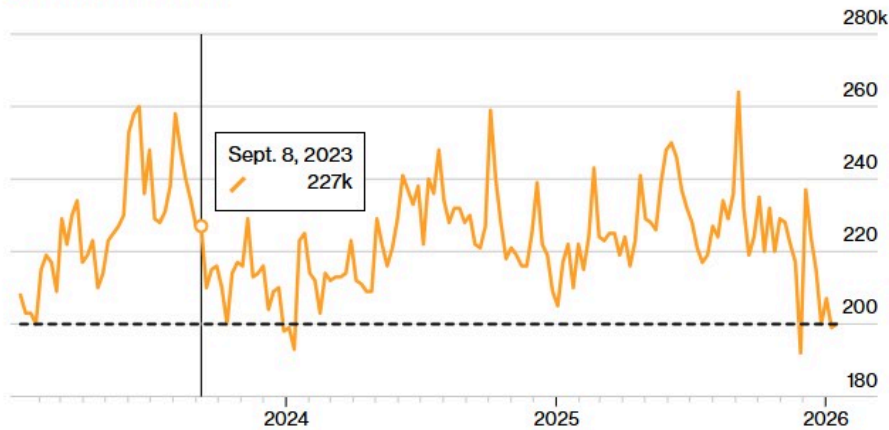
Bloomberg: US Jobless Claims Steady at 200,000 in Sign of Low Layoffs 미 신규 실업청구 20만건으로 안정적...’낮은 해고’

- 지난주 미 신규실업 청구건수가 변동성이 심했던 홀리데이 시즌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1월 17일로 끝나는 주에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1천 건 늘어난 20만 건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목요일 연방노동국을 밝혔다.
- 이처럼 2만건이나 그 이하인 경우는 지난 3년동안 몇 차례 없었다. 해고가 줄어든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 4주 평균 신규 실업청구건수도 지난주에 201,500건으로 지난 2년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US Initial Jobless Claims Steady at Low Levels

Applications have been at or below 200,000 a few times in recent years

Initial jobless claims



Source: US Department of Labor

기사

Bloomberg: Fed's Balance Sheet Is Point of Tension as Trump Weighs Chair

연준의 대차대조표 주목... 트럼프의 의장 저울질에

- 투자자들이 연준의 새로운 의장 후보자가 누구지 주목하는 가운데 주요한 질문은 새로운 지명자가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되고 있다. 대차대조표는 연준이 돈을 얼마나 공급하고 회수하는지와 행 시스템에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다.
- 지명자 선택은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일상적인 자금 차입과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차기 연준 의장은 지급준비율 상황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머니 마켓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주목되고 있다.

기사

[물류]

WSJ: Prologis Revenue Climbs as Warehouse Demand Rebounds

창고 수요 반등으로 관련 업체 매출 증가

- 세계 최대의 물류·산업용 부동산 회사인 Prologis의 매출이 창고 수요의 반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소비 상품 판매업자들과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새로운 창고를 리스하고 있다.
- 작년의 경우 창고 리스 면적이 글로벌 차원에 2억2천8 백만 스퀘어피트로 나타났다.
- 부동산 서비스 Cushman & Wakefield에 따르면 미 전역의 창고 평균 공실률은 4분기에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 7.1%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가용 공간이 늘지 않은 분기였다.

- 한편 이 회사의 4분기 매출이 수요 반등에 힘입어 22억불에서 22억5천만 불로 증가했다. 운영 관련 핵심 펀드도 주당 1달러 44센트이며 4분기 어닝은 주당 1달러 37센트에서 1달러 49센트로 늘어났다.
- 이 회사의 2026년 어닝은 주당 3달러 70센트에서 4달러 사이, 그리고 운영 핵심 펀드는 주당 67달러에서 6.20센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What Trump Said About the U.S. Economy at Davos 트럼프의 다보스에서 언급한 미국 경제는?

- **무역과 관세 정책** 관련해 트럼프는 이로 인해 공장 건설이 늘고 미국에 혜택을 주는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상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연준에 따르면 지난해 첫 8개월간 공장 투자와 지출은 그 전년도 고점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 **감세** 관련해 감세와 팁 세금 면제 등으로 미국에 생산 확대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로 감세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 구매**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단독주택 투자를 금지토록 의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 그는 이밖에 자신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1달러 99센트나 그 이하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 전체 평균 가격은 갤런당 2달러83센트로 작년의 3달러 13센트보다 낮아졌다.

기사

[오일]

Bloomberg: Oil Declines as Zelenskiy Signals Progress in Peace Talks 오일가 하락...젤렌스키 평화 회담 진전 언급

-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향후 수일 내에 만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후에 오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합의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한 후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64달러에 거래 중이다.
-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의 돌파구가 마련되면 이미 공급 포화 상태인 글로벌 오일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종식되는 등 공급 병목이 해소되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GE Aerospace Revenue Rises on Surge in Orders GE Aerospace, 주문 쇄도로 매출 증가

- 항공기 엔진 및 항공우주 부품 제조·서비스 기업인 이 회사는 작년에 수익이 전년도의 22억9천억 달러에서 28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 주당 어닝은 2달러 40센트로 증가했다.
- 전체 매출은 18% 늘어난 1백27억달러이며 전체 주문 규모는 74% 증가한 2백70억달러를 기록했다.
- 올해 매출 성장은 두 자리 아래쪽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당 어닝이 7달러 10센트에서 7달러 40센트로 예상된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